

전 남

화마에 검게 그을린 완도 예송리 갯돌해변

천연기념물 상록수림 지켰지만 명물 갯돌 잃어 주민 '망연자실'

“태풍에 전복을 잃고, 화마에 마을의 자랑인 갯돌을 잃어버렸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갯돌에 묻은 검은 때는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지난 14일 완도군 보길도 예송리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주민들이 밤을 새워 진화작업에 나서 천연기념물인 상록수림을 지켜냈지만 또 하나의 명물인 갯돌(검은 자갈)이 시커멓게 변모해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화재 당시 폐자재가 불에 녹으면서 예송해변의 갯돌에는 녹아 흐른 스티로폼과 그을림이 덕지덕지 달라 붙는 바람에 흉칙한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예송리 갯돌해변은 많은 관광객이 갯돌이 파도에 쓸려 내려가며 빛어내는 아름다운 소리에 취하고 하던 곳이다. 하지만 이제는 검게 그을린 갯돌과 타다 남은 폐자재로 폐허가 되었다시피했다. 아름다운 예송리 갯돌해변에 전복 양식장 폐자재들이 밀려온 때는 태풍 ‘볼라벤’이 전남지역을 강타한 지난 8월말.

주민들은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해변 폐자재를 치우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중장비를 배정받아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700m 길이의 해변에 걸쳐



지난 14일 오후 발생한 화재로 인해 검게 변해버린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갯돌해변. 많은 관광객들이 파도에 닿고 닦은 갯돌이 빛어내는 아름다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명소이다.

있는 폐자재 더미는 엄청난 규모였다. 하지만 단대없는 화마가 덮쳐 갯돌과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40호)이 큰 피해를 입었다.

그나마 공무원과 주민들이 불길과 마을과 상록수림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내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 전복양식과 관광을 생업으로 삼아

왔던 주민들은 전복과 갯돌이 한꺼번에 사라져 이제 생계 수단마저 모두 잃을 처지에 빠졌다.

보길면사무소 이영문 면장은 “소방 인력과 장비를 충원하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전남농협, 나주 농업박람회서 1000억대 원예농산물 팔았다

유통업체와 구매약정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는 나주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리는 ‘2012 국제 농업 박람회’에서 상품설명회를 열고 모두 1000억 원의 원예농산물 구매약정을 체결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박람회 기간(5~29일) 중 15~16일 ‘농협의 날’로 정하고 소비 유통업체 구매자 40여 명을 초청해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는 등 상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전남농협은

전국 하나로클럽 구매권을 가진 농협 도매사업단과 800억원의 원예농산물 구매약정 계약을 체결했다.

또 양곡 부문에서 제주지역 하나로마트와 200억 원의 추가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상품 설명회는 농협 연합사업단과 조합 공동사업법인, 통합 RPC(종합미곡처리장) 등에서 시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을 전시하고 초청 바이어를 대상으로 납품 제안과 상품 소개 등을 통해 출하처를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나주 미래산단’ 민자유치 논란

“시, 공모절차 없이 업체 선정” 의혹 제기

나주시가 ‘나주 미래 산업단지’를 민자유치로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선정과정에서 공모절차를 밟지 않고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나주시의회 정찬걸 의원은 제1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선정과정에서 민자유치 가인 컨설팅회사와 공모절차를 무시하고 선정했다”며 “현재 참여중인 고건개발과 투자자문회사인 가인과의 관계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또 “나주시와 고건개발이 공동 시행사”라는 시중에 떠도는 의혹들에 대해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투자협약서’를 공개해 줄 것”을 나주시에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6월 미래산단 조성을 위해 “고건 종합개발 투자금 2000억을 유치해 총면적 90만평 중 57만평을 조성한다”고 밝혔지만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전남도에 변경승인 절차도 밟지 못하고 있다.

또 정 의원은 고건개발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로 2000억을 투자했는데, 나주시가 증권사에 제출한 위임장을 준 이유와 고건 종합개발이 자체적으로 PF한 자금인지 아니면 이 투자금에 대해 나주시가 어느 부분까지 책임지고 있는지 답을 요구, 앞으로 집행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jung@

“배·사과 한꺼번에 담아 팝니다”

나주시-영주시 손잡고 공동 판매 홍보행사

나주시와 경북 영주시가 손을 잡고 배와 사과를 한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공동 홍보행사를 갖는다.

나주시는 “오는 2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각계인사와 출향향우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배와 영주사과의 첫 공동 홍보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함께하면 맛은 2배, 기쁨은 4배’라는 주제와 ‘영주사과와 나주 배의 새콤달콤 사랑이야기’를 주제로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이날은 올해 유례가 없는 태풍을 이겨낸 나주 배와 영주사과 공동상품을 출시, 시장수요를 창출한다는 의미와 양 지역의 화

합을 통해 어려운 경제 현실을 극복해 나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이색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나주시와 영주시는 ‘연모’(배의 꽃말)와 ‘희망’(사과의 꽃말)의 2가지 과일을 한 상자에 담아 ‘사로 사과하면 기쁨은 배가 된다’는 스토리텔링을 가미해 공동 판촉 및 홍보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사과와 배를 절반씩 포장해 판매한 사례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영·호남 농업의 상생모델로 양 지자체가 지역 대표 브랜드를 함께 내걸고 홍보·판매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중부취재본부=손영철기자 ycsn@

진도 앞바다 가을 꽃게 풍년

매일 20~30척씩 출어 1척당 400~500kg 어획

서망항 위판고 2억... ‘꽃게 축제 한마당’ 개최도

진도 앞바다가 4년째 가을 꽃게잡이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16일 진도군 수협에 따르면 전국 꽃게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진도는 요즘 외·내병도, 독거도 등 적조가 발생하지 않은 조도면 해역을 중심으로 20~30척의 어선이 출어해 풍어가 울리고 있다.

서망항에는 꽃게잡이 통발 어선이 하루에 최대 400~500kg의 꽃게를 잡아오고 있다. 예년보다 20~30% 어획량이 늘었다.

이 꽃게는 위판하기가 무섭게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대도시로 kg 당 1만~1만5000원에 날개 돌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

서망항에서 위판한 꽃게는 하루 평균 10t가량, 금액으로 따지면 2억원에 이른다.

전국 생산량의 30%인 진도 꽃게 위판고는 ▲2009년 33억원(243t) ▲2010년 97억원(769t) ▲2011년 412억원(924t)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벌써 80억원(489t)에 이른다.

가을철 진도를 대표하는 효자 특산물로 자리매김한 꽃게는 상상하고 살이 딱 차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진도 앞바다가 꽃게 풍어에 출렁인

것은 잘 발달한 모래밭과 꽃게 서식에 알맞은 14~15도의 수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도군의 지속적인 종묘 방류사업과 해양경찰의 지속적인 중구어선 불법 조업 단속도 한 몫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04년부터 바닷모래 채취를 금지하고 매년 1억원 가량(100만 미)의 수산자원 종묘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청정해역에서 통발로 갯 잡아 올린 진도 꽃게는 그들로 잡은 다른 지역 꽃게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꽃게집, 탕, 무침, 간장 계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진도군은 진도 꽃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19~21일 ‘제3회 진도 꽃게 축제 한마당’을 서망항 일원에서 개최한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가을에 핀 양벚꽃

가을걷이가 한창인 강진군 신전면 사초마을 도로변에 양벚꽃이 개화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8월말 태풍 ‘볼라벤’ 등 영향으로 잎이 떨어지며 이상개화를 한 것으로 분석했다. <강진군 제공>

해남군 관광산업 활성화 팔견였다

전문가 의견 등 수렴 행·재정 지원 강화 조례 제정

해남군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군은 관광산업에 행·재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내용을 뼈대로 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 16일 공포했다.

이 조례에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 계획 입안 시부터 전문가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관광개발사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관광객 중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군내에서 1박 이상 하는 30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면 1회에 10만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나 행사 유치 때도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정기자 dia@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상당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부 문의전화 021538-9388

<p>■ 광주 구도청원 세기보청기</p> <p>문의전화 (062)225-5110</p>	<p>■ 광주 백운정원 세기보청기</p> <p>문의전화 (062)651-4477</p>	<p>■ 순천 세기보청기</p> <p>문의전화 (061)752-8845</p>
--	--	---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국제인증 ISO 9001인증

국제의료기기인증 ISO 13485인증

CE 0120

유럽공통 CE마크 인증

의료기기 제조업체

전국 점망

서울 신림로점(합동점) 상일로 입구: 022276-0687-9 강남점(합동점)고척역입구: 023477-5110 종로2가점(합동점) 경: 02733-0220 송파점(신촌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기 안양점(구.사리현역) 입: 032421-2288 부평점(부평역) 입: 032617-5110 수원점(남문) 입: 031246-5110 의정부점(모천로) 입: 031821-6655 안양점(백산로) 입: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입: 03166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 입: 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 입: 031378-4183 부천점(부천역) 입: 032329-4400 남양주점(평내로) 입: 0718829-9803 부산 서면점(서면로) 입: 051818-8800 서면5점 818-0016 남포동점(부평역) 입: 051256-7200 울산 울산점(울산로) 입: 0522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입: 055251-0060 진주점(중앙로) 입: 055745-9870 대구 동명점(동명네거리) 입: 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 입: 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 입: 053425-7576 경북 포항점(북로) 입: 054044-5110 안동점(구.안동) 입: 054859-2288 광주 광주점(안동동) 입: 062225-5110 광주점(백운정) 입: 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로) 입: 061752-8845 전북 전주점(전북로) 입: 063252-5700 오산점(구.서생점) 입: 063346-1098 익산점(북부) 입: 063838-6600 남원점(남원로) 입: 063832-8628 대전 대전점(도심) 입: 042254-5110 대전점(충촌로) 입: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입: 042255-6900 울산 천안점(천안역) 입: 041553-2888 광주점(광주역) 입: 041852-5110 충북 청주점(한겨레) 입: 042254-5110 대전점(043222-1177-8 충주점(삼천로) 입: 043652-1414 강원 강릉점(해안로) 입: 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입: 033253-5110 제주 제주점(영남로) 입: 064753-4358